

“광주 출신 자랑스러워... 작품성 인정받아 부듯”

지역 서점, 한강 책 ‘품절 대란’ 도서 예약 주문도 접수 마감돼 시민들 “작품 꼭 읽어보고 싶어” 품귀현상에 웃돈주고 거래되기도



“한강 작가 책 다 팔렸나요?” 지난 11일 오후 1시께 찾은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영풍문고 광주터미널점에는 직원들에게 한강 작가의 작품 구입을 문의하는 고객들로 북적였다.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이 그의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역 서점가를 찾아 나선 것이다.

영풍문고 광주터미널점은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 섹션 매대를 설치했지만 이날 오전 모든 작품이 판매됐다.

지난 10일 오후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팔려 나가기 시작한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몇시간만에 있던 모든 수량이 품절되고 예약 주문까지 접수가 마감된 상태였다.

이를 알지 못한 채 서점에 들어서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며 도서 검색대를 찾아 나선 대학생 손완보(24)씨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검색하더니 ‘재고 없음’이라는 안내문을 보고는 이내 한숨을 내뿔었다.

지난 11일 오후 1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영풍문고 광주터미널점에 마련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섹션 매대는 준비된 작품이 모두 판매돼 텅 비어 있다.

손씨는 “고등학교 때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읽고 광주5·18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강 작가를 알게 됐다”며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고 싶어서 서점에 왔는데 벌써 작품들이 품절됐을 줄 몰랐다. 다른 서점도 품절됐을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라

도 주문해야겠다”고 말했다. 텅 비어 있는 매대 앞을 서성이던 시민 장영주(52)씨는 “어제 뉴스에서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을 접하고 너무 울컥했다”며 “한국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심지어 광주 출신이 수상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한강 수상을 계기로 전 세계에 한국의 작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부듯하다”고 환호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의 작품을 2개밖에 안 읽어봐서 추가로 책을 구매하러 왔는데 이미 다 팔렸다고 하더라.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영풍문고 관계자는 “수상 소식 이후에 한강 작가 작품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 재고를 전부 내놓았음에도 물량이 부족한 상태다”며 “예약 주문도 한 도서당 300권 이상 신청돼 이제 주문 접수가 마감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 작가 작품들은 오는 15일 출고 예정인데, 업체 상황에 따라 입고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동구 중앙서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곳에 있던 한강 작가의 작품은 이날 오전 모두 소진된 상태였다. 인근에 있는 중고 서점 역시 한강 작가의 작품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서점 관계자는 “한강 작가 작품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오전까지 수량이 있었으나 오후에 금세 다 나가면서 품절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강의 작품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는 한강의 저서 ‘소년이 온다’ 구판본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도서가 온라인 서점에서 1만35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배가량 값이 오른 것이다.

한편 이같은 품귀 현상에 국내 출판사와 인쇄소들은 비상근무를 통한 제작에 돌입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입고될 예정이다.

글·사진·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소년이 온다’ 실존인물 문재학 열사 어머니 “5·18 제대로 알려질 것”

5·18 당시 전남도청 지키다 숨져 소설 속 ‘동호’라는 인물로 그려내



고 문재학 열사

존 인물인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다.

문재학 열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전남도청에서 사상자들을 돌보고 유족들을 안내했다.

어머니 김씨는 문 열사를 만류했지만 “초등학교 동창이 죽었다. 이렇게 놔두고는 못 간다”며 “학생들은 손을 들고 항복

자세를 취하면 계엄군이 죽이지 않는대더라”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하지만 문 열사는 끝내 항쟁의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에서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진압작전 중 총탄에 맞아 숨졌다.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 공개한 사진에는 1980년 5월27일 오전 7시50분께 옛 전남도청 경찰국 2층 복도에 흥건히 피를 흘리며 쓰러진 교련복을 입은 소년 두 명이 있었다. 같은 고등학교 친구였던 문재학과 안종필이었

다.

해당 사진을 보면 사망 당시 주변에 총기는 없었다. 학생들이 총기를 들고 계엄군에게 저항했던 흔적도 없었으며 빵조각만이 떨어져 있었다. 계엄군은 문 열사의 시신을 망월동에 암매장한 뒤 이를 숨겼다.

한강은 지난 2014년 문 열사의 이야기를 소설 속 ‘동호’라는 인물로 그려내 ‘소년이 온다’를 집필했다. 소설에 동호의 어머니가 동호를 그리워하는 내용은 김씨의

이야기를 한강이 글로 풀어냈다.

김씨는 지난 10일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에 반갑고 기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그동안 김씨와 김씨의 남편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는데 한강 작가의 작품으로 전 세계에 5·18의 진상이 알려지게 돼 감사하다는 의미다.

김씨는 먼저 하늘로 떠난 아들을 그리워 하며 “이제는 많은 사람이 5·18을 알게 될 것이다”면서 “재학아, 이제 내가 못 이룬 것 다 이뤄졌으니 걱정말고 편히 지내라”고 말했다. 민현기기자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4년 10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0원 중 금 99,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의 총액을 금 1,000,000원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 재일 익일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4년 10월 14일
주식회사 알토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321, 6층 (조례동)
사내이사 김미라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문화의 선두주자

티켓마루

콘서트 뮤지컬 연극
티켓예매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1588-0766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直通 062-519-0710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돈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필요해서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